

IIRI Online Series

고립 속에 진행되는 북한의 전략적 역량 강화

양 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2021. 1. 26

고립 속에 진행되는 북한의 전략적 역량 강화



양 옥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은 집권 10년 차의 북한군 변화

2021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은 급작스러운 대대적 정치이벤트였지만,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 이후 북한은 지도자 부재로 인한 급변사태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 했다. 2009년 이후 신속한 후계자 확정과 권력 이양 결과 김정은 정권은 빠른 시일 내 안착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집권이 조선인민군에게 마냥 희소식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김정은 집권 후 첫 조치 중 하나는 군을 확실히 자신과 당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다. 우선 무기수출을 제외하고는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을 대부분 내각으로 이관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일소했다. 김정일 시대를 대변하던 군부의 대표 주자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해임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로 총정치국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현 국방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했다. 결정적으로 2016년 국방위원회를 해편하고 인민무력부를 부(部)에서 성(省)으로 변경함으로써 군에 대한 특별한 위상을 폐지하였다.

군의 정치적 위상은 줄어들었지만, 군사력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0년대부터 북한이 실시해 온 미

사일 시험발사 가운데 80% 이상이 김정은 집권기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잦은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놓고 많은 분석가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시험 데이터의 축적에 따른 무기체계의 고도화가 차분히 이루어져 2017년 말까지 열핵폭탄(수소탄) 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핵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정책 실패 속의 군사적 성공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극명히 보여 준다. 우선 김일성 시절인 1980년에 개최된 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라는 비상통치체제를 청산하고, 노동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상국가로 복귀를 확인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5년 차에 대대적으로 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권력이양이 문제없이 정착했음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7차 당대회로부터 불과 5년 만이자 김정은 집권 10년 차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함으로써, 당보다 김정은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단계로 이전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실 2020년까지 북한이 추진한 국가적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국제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옥죄어 오는 가운데, 주기적인 자연재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더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완벽히 실패했다. 김정은 스스로도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여태까지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눈물과 함께 인민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여태까지 북한의 독재자 가운데 가장 자신을 낮추면서도 인민을 치켜올린 이례적인 연설을 한 바 있다.

그나마 7차 당대회 이후 유일하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국방 분야뿐이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내세울 수 있던 것은 ‘국가핵무력 건설대업’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였다. 그리하여 당연히 당대회의 마무리는 대대적인 열병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미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사상 최초로 야간에 열면서 군사력 건설을 대대적으로 과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국가적으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열병식을 또다시 야간에 거행한 것은

그만큼 8차 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군사력 증강 이외에는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8차 당대회로 부각된 군사적 성과

실제로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제시한 군사력 증강 방침은 실로 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핵심은 크게 전술핵 개발, 전략핵 고도화, 북한군 현대화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한반도 전구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을 선택했다. 그간 우리 군이 준비해온 KAMD(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세대 무기로 KN-23, KN-24, KN-25 등 저고도 정밀타격 전술탄도무기를 개발하여 2019년에 시험발사를 반복했다. 이 중에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전술탄도탄을 모방한 것으로, 이스칸데르는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도 확실한 요격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마찬가지로 KAMD로 요격이 어렵다. 특히 북한은 이번 1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KN-23의 개량형에 전술핵을 탑재하여 한반도에서 핵우위를 점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북한은 사정권 15,000km의 전략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면서 미국에 대한 핵억제능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3가지 과제로 고체연료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개발, ICBM용 극초음속 활강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탄두의 채용, 그리고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 잠수함의 원자력추진 채용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 시리즈인 ‘북극성’ 계열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으며,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 사상 최대 크기의 SLBM인 ‘북극성-5’를 공개함으로써 고체연료 ICBM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HGV를 현재 실전배치한 것은 중국뿐으로, 북한은 아직 HGV에 관한 시험비행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 여부는 불투명하며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SLBM의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북한은 이미 SLBM 개발과 병행하여 원자력 추진체계를 개발해왔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시험함 단계를 거쳐 실전배치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 추정이다. 북한은 비핵화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으며, 핵보유국으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군의 현대화이다. 북한은 무기체계의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 단계로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확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북한군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형 탱크나 자행포를 개발하는 등 꾸준히 재래식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꾀해왔다. 1월 열병식에서는 순항미사일까지 공개하면서 정밀타격역량이 한·미 독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8차 당대회 보고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확보와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개혁의 전망

부국 없이는 강병도 없다. 국가로서의 북한의 경제적 역량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400억 불의 GDP(PPP)로 세계 180위 순위이며, 아·태지역 42개국 중의 42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강화된 대북 국제제재로 정상적인 수출입은 물론 인력수출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력이 한정된 국가가 전략핵과 전술핵 능력에 더하여 첨단 재래전력까지 갖추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현재 갖춰진 역량이 아니라 미래의 군사역량 확보를 위한 계획의 선언이자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이러한 선언은 한·미 양국에 대한 시위의 차원으로 실제 역량보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특히 재래전력의 현대화는 핵전력에 비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낮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전력 강화보다 후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부국강병의 상식을 뛰어넘는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을 거듭해왔다. 캄보디아 정도의 GDP를 가진 국가가 12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전략핵과 전술핵 능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북한은 고도의 무기체계를 독자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력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게 되

었으며, 이를 국가적 발전동력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논문 등을 통하여 국력경쟁의 기준이 과학기술경쟁과 인재경쟁이라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김정은의 통치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꾸준한 국방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춘 핵억제능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핵전력의 고도화와 재래전력의 현대화까지 목표로 하여, ISR과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를 결합하는 차세대 국방역량까지 추구하고 있다. 북한 국가지도부는 경제 분야에서 국가적 목표설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방공업은 북한의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 취했던 군사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 성장모델과 유사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국방공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의 접근은 분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북한을 평화적 노선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된다고 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보된 재원으로 재래전력 현대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비민주적 독재체제가 갖는 내재적 한계이자 모순이므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점이 8차 당대회와 기념 열병식을 통하여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끝/

저자 소개

양욱 박사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에서 군사전략 전공으로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육군사관학교 시간강사로 군사전략과 국방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사기업 중 하나였던 인텔엠티(주)를 창립하여 운용했었다. 현장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자 WMD 센터장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등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특전사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방송을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전술 1·2권(2015, 2018)”, [네이버 무기백과사전](#)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uk-yang@naver.com)

